

교수수필 나의 소련 방문기



김진영
(문리대 교수·국문학)

“사회주의 국민 자존심 없다”

라는 주제를 내걸고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참석하고 논문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회의는 3일간 계속되었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모국어교육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학술적·실천적 연구와 작업을 위한 이번 모임은, 소련에도 우리 동포가 40여만 명이나 살고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제소 ‘고려인’이라고 일컫는 우리 동포들은 그동안 이러한 학습모임을 열었지만 한번도

서도 정정하고 힘있게 모국어 교육기관의 설치를 역설하였다. 신문사에서의 좌담회가 동포들의 삶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확대되어가는 중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신문사 중앙벽에 레닌 사진이 걸려있기에, 왜 코르바초프 대통령의 사진을 걸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젊은 우리가 방문했던 소련의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기에 금급했던 터였다. 다만 타슈켄트 교외에 있는 홀호즈(집단지정) 사무실에 있는 정면의 레닌 사진과 더불어 측면벽에 코르바초프의 사진이 붙어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박일선 생이 나서서 대담하기를, 고르비의 개혁·개방 노선도 그 사상적 근저를 레닌에 두고 있다면서, 레닌의 위대성을 강조하였다. 스탈린이나 흐루시초프 등이 레닌의 사상과 정책을 왜곡시켜서 그렇지 레닌의 철학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얼마전 한국의 모 철학자가 맑스-

로 소련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도무지 열의가 없었다. 팔만한 물건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제법 물건이 있는 외국인 전용상점(베르스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는 물건을 열심히 팔아보았자 자신들에게 더 돌아가는 몫이 전혀 없으므로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여비로 가져간 약간의 돈조차 다 쓸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소련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소련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런데 이같은 열심이 없어 보이고 게으르다고까지 우리 눈에 비치는 그들인데도 다른 여건에서는 사정이 사뭇 달랐다. 즉 지하철을 뚫을 때인데, 핵전쟁을 대비해 방공호 겸용으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지하철은 그 깊이가 100미터도 더 깊이 지하로 들어갔다. 그곳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운행되는데 속도도 아주 빠른데다 경사가 급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비취들 한 쪽을 더 빨리 뛰어 오르고 내리는 시민들이 많았다. 즉 자기가 필요하면 급히 뛸 수도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사회주의가 인간의 약한 욕망을 억제한 측면도 상당하겠으나, 본래 선한 인간의 정당한 욕구와 동기, 가능성까지를 철저하게 봉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국가의 창의적 사고와 자아성취를 위한 열성적 노력이 발휘될 길을 다 막아버렸기에 오늘의 소련이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닐까. 사회주의의 중추국이 이렇고, 중국이 그렇진대, 우리 동포의 반쪽이 사는 북한은 또 얼마나 피폐한 삶의 현장일까를 생각하노라니 마음이 착잡하고 몹시 무겁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일을 더 구하시고,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시기를 간구한다.

소수민족 차별정책 ‘고려인’ 1% 한국말 구사 달러·미국 영향력 커... 말보르·콜라·피자 인기

품의 역사가 되살아나서 회의에 참석했던 동포들은 격양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이 같은 학술행사가 있게 된 것에 감격해 하였다. 제소 동포 가운데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는 1%에 불과하고 그것도 주로 노년과 장년층이어서 가정에서도 부부간, 부자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러시아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정은 상당히 우울한 것이었다. 다행히 소련에서 코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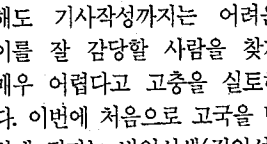
제주 풍물·역사 다룬 ‘제주기행’

한 의미를 만날 수 있는 역사기행을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 ‘섬속의 섬의 비밀’, ‘섬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삶의 의미를 찾는 제주여행’, 제주 4·3항쟁을 다룬 ‘우리 땅의 의미를 찾는 역사순례여행’ 등 4부로 구성된 ‘제주기행’은 제주도의 생동감있는 현장을 보여주며 제주도의 오늘을 알린다. 고창훈의 세시탈로 구성된 필진이 모두 제주가 고향으로, 제주를 찾는 이들이 이 책을 접한 후 제주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보고 느끼고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하고자 집필하였다. (백성서당, 값 4천원)



G7(Group of seven)이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을 말하지만 통칭적으로 G7정상들로 구성된 회담을 의미한다. G7정상회담이 처음 개최된 것은 75년 11월 프랑스의 낭방에서였다. 당시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창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캐나다가 참석해 7개국 정상회담이 된 것은 76년 6월 제2차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때부터이다. 75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급변하던 정상회담(7월15일~17일)까지 17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G7정상회담의 취지는 처음에 각국이 정책을 협조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국들이 집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여러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여 정치적·외교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세계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

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7개국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가 세계질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명목 아래 거리낌 없이 발현되어 왔다. 한국등 신흥공업국(NICS)에 세계경제 안정의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이들 국가들을 성토했던 것은 한 사례이다. 또한 각종 정치현안이 있어서도 행동을 유발하고 주도한 강대국의 책임소재 규명보다는 피해국의 책임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여 왔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분쟁이라든지, 중동에 침입한 미국의 군대를 수출한 것이 그 예이다. 이와같이 7개국 모두가 각자의 타산을 뒤에 감추고 스스로 없이 자기권을 챙기면서 표면적으로 세계지도국가인척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G7정상회담이 여러가지 좋은 결과를 낳은 것도 많지만, 전술한 바와같이 표현하는 것은 어느면가 그들의 편의에 따라 우리에게도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G7연례회담의 이면에는, 화려한 회담의 배경에 그들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와 패권주의의 색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G7(Group of seven)이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을 말하지만 통칭적으로 G7정상들로 구성된 회담을 의미한다. G7정상회담이 처음 개최된 것은 75년 11월 프랑스의 낭방에서였다. 당시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창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캐나다가 참석해 7개국 정상회담이 된 것은 76년 6월 제2차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때부터이다. 75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급변하던 정상회담(7월15일~17일)까지 17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G7정상회담의 취지는 처음에 각국이 정책을 협조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국들이 집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여러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여 정치적·외교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세계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

극단 작은 신화 ‘전쟁음?악!?’공연 생활에 나타나는 전쟁의 속성 그려

트 폭을 새롭게 각색해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을 통해 인간의 중요와 이기심, 잔혹성, 삶과 죽음의 한기운에 선 무라카미 등을 표현한 전편 ‘전쟁음?악!’의 무대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옮겨온 작품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속성이, 실화를 바탕으로한 프로그램, ‘지하철역에서’, ‘CF’, ‘버섯구름’등 에피로그까지 30여개의 장면에서 나타나며, 이는 기존 사실주의 연극과 같이 줄거리를 가지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삽화들의 나열로 구성되며, 통제적 음향, TV의 존재, 대중문화, 물개성적 의상, 페튜를 이용한 소도구들

노신의 번역집 ‘청년들아...’발간

(아침꽃을 저녁에 줘다)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발간되는 노신의 작품으로 중국현대문학의 아버지이자, 문학혁명의 주창자로 불린 노신의 서한들을 유세중선생이 번역한 것이다. 노신의 서한들은 ‘그가 어떻게 힘든 삶속에서 그의 애정과 분노를 지켜왔는가’를 알려주므로써 생활의 지침이 되어준다. 이 책은 혁명적 문학가로서의 노신의 저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사의 모든 실천은 험한 조건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시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도서출판 ‘창’ 값 4천5백원)

권성백 (대학원 석사 3기·경제학)

“형이 네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고생이야 객지에 나와 있는 형이 더하죠. 이제 우리 항공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던데 언제쯤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대우는 이미 고유모델 항공기 생산을 위한 기본 설계능력부터 항공기술의 최대관건인 첨단 복합소재 개발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을 갖춰놓고 있지. 게다가 최근에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 요청을 받을 정도란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안에 항공기는 물론 한국 최초의 인공통신위성이 발사되는 것을 보게 될거야.” “형, 흔히들 이론과 현장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대학시절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가 말이야.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얼마만큼 창조적으로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대학시절 이론적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지.” “알았어요. 형, 남은 대학생활 열심히 노력해서 힘 못지않은 신기술 창조에 주역이 되고야 말겠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자기개발에 힘쓰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중공업 최우철(우주항공 연구소 항공기 소재팀) 사원과 공학도인 동생 최정현.